



6m크기에 달하는 토마스 제퍼슨 동상 주변에는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명문들이 새겨져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워싱턴 D.C.=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오니아식의 돔구조로 설계된 제퍼슨 기념관은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뛰어난 건축미를 자랑한다.

워싱턴 D.C 복판 웅장한 돔 6m 청동상 美 건국이념 웅변

미국 대통령기념관에서 배운다

'김대중 기념관' 글로벌 명소로

(5)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워싱턴·필라델피아=박진현 문화예술 선임기자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에서 남쪽으로 걸다 보면 아름다운 호수를 만나게 된다. 인공호수공원인 타이들 베이스(Tidal Basin)이다. 원래는 홍수조절 용으로 조성됐지만 이젠 워싱턴 D.C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매년 4월이면 3.2km에 줄지어 늘어선 3700여 그루의 벚꽃나무 행렬이 장관을 이룬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앉아 벚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워싱턴만의 색다른 매력이다.

타이들 베이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명소는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Thomas Jefferson Memorial)이다. 이오니아식의 돔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은 호수와 벚꽃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한쪽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이 기념관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1743-1826년)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탄생 200주년 해였던 1943년 문을 열었다. 독특한 원형건축물은 워싱턴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Art)을 설계한 유명건축가 존 러셀 포프의 작품으로 어느 대통령 기념관에서 보기 힘든 미학적인 완성도를 자랑한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한 가운데 서있는 거대한 제퍼슨 동상이 방문객들을 압도한다. 6m 크기의 동상 주변과 둥근지붕 테두리에는 그가 남긴 명문들이 새겨져 있다. 이들 가운데 백미는 “나는 인간 마음의 모든 형태의 전제정치에 대해 영원히 적대시할 것을 맹세한다”(I have sworn upon the altar of God, eternal hostility against every form of tyranny over the mind of man)로, 읽는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이 구절은 1800년초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 알렉산더 해밀턴의 연방파와 작은 정부와 권력분산을 통해 자유의 극대화를 주장한 공화파(제퍼슨 주도)의 정쟁이 한창일 때 제퍼슨이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썼던 것이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그의 신념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한다.

사실 제퍼슨 만큼 혁혁한 발자취를 남긴 대통령도 드물다. 그는 1776년 작성된 독립선언서의 초안 저자이자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다.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이 미국 민주주의의 실천가였다면 제퍼슨은 독보적인 이론가였

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조물주로부터)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 등의 자연권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조직되며, 국민의 동의로부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이 나온다.”는 독립선언서는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의 대의(代議)이기도 하다. 훗날 에이브러햄 링컨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라는 기념비적인 연설로 제퍼슨의 민주주의 원칙을 되새겼다.

하지만 뉘나뉘나해도 대통령으로서 가장 ‘찬란한’ 업적은 1803년 프랑수아령(領)의 루이지애나(미 시시피강 서쪽~로키산맥) 매입이다. 평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갖고 (그것을) 일굴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게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지름길이라고 믿은 그는 당시 재정을 겪고 있던 나폴레옹과 협상해 1500만달러를 주고 한반도의 10배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을 사들였다. 루이지애나는 오늘날 중부 14개 주에 해당하는 214만7000km²의 면적으로 1km당 7달러라는, 믿기지 않는 할매에 영토를 두 배로 불렀다. 만약 제퍼슨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초강대국 미

국은 없었을 것이다. 미국인들이 링컨 기념관과 함께 제퍼슨 기념관을 워싱턴 D.C의 심장부에 ‘모셔 놓고’ 추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퍼슨의 추억과 흔적은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홀’(Independence Hall)과 버지니아주 몬티첼로(Monticello)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디펜던스 홀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제2차 대륙회의(1775) 집회장으로 사용된 역사적인 곳으로 독립선언서를 공포하면서 함차게 찢던 자유의 종이 함께 전시돼 있다. 원래는 인디펜던스 홀 중앙의 첨탑에 매달려 있었는데 건물의 안전문제 때문에 1976년 홀 인근의 유리전시관으로 옮겨졌다.

워싱턴에서 남쪽으로 2시간 30분에 위치한 몬티첼로는 이탈리아로 ‘작은 언덕’이란 뜻의 시골마을이다. 1768년 제퍼슨은 이곳에 사저를 짓고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내려와 제2의 삶을 보냈다. 그가 세운 버지니아 대학과 함께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유품과 자료, 묘지가 보존돼 있다.

그의 유언에 따라 묘비에는 대통령이나 부통령 등의 화려한 공적경력 대신 ‘독립선언문의 작성자, 종교의 자유 법령 제정자, 버지니아대학 창설자, 토마스 제퍼슨 여기에 잠들다’라고만 짧게 새겨져 있다. 대통령으로서 기억되기 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어떤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후손들에게 평가받고 싶어서였다. 미국인들은 이런 제퍼슨을 우상으로 여기며 수많은 유품의 모델과 행운의 상징인 2달러의 주인공으로 그를 두고 항상 기억하고 있다. /jhpark@kwangju.co.kr

독립선언문 등 정치신념 담긴 명문 기념관 곳곳에 낙향해 여생 보낸 몬티첼로엔 유품·묘지 등 보존



인디펜던스 홀 주변 유리전시관에 보존된 자유의 종. 원래는 인디펜던스 홀 첨탑에 있었지만 건물 안전문제 때문에 1976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필라델피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스마트폰에서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보려면?

LOSE VS WIN

일반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Tip.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컴퓨터 해상도에 맞게 제작되어 스마트폰에서는 콘텐츠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나, 모바일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해상도에 맞게 제작하여 편리함과 시안성을 극대화 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문의
062-514-1144

모바일홈페이지가 꼭 필요합니다.

모바일홈페이지란?
모바일 홈페이지에 특화된 UI설계 및 디자인을 구현하여 QR코드 연동으로 쉽고 간편하게 소비자가 고객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근 할 수 있게하는 온라인 홍보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사례

ALL-IN-ONE SERVICE
올인원서비스는?
한국전화번호부 어플 검색과 모바일 홈페이지 그리고 QR코드를 연동한 다양한 인쇄마케팅 홍보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